

활개치는 온라인 암표, 처벌규정 없어 사각지대

공연·축제 재개 속 여수·사이 흠뻑쇼·광주 팬텀싱어4 등 가격 폭등 오프라인 암표 매매 경범죄인데 온라인 거래 단속은 법적 근거 없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콘서트, 페스티벌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가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암표(暗票)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이 재개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원가보다 비싸게 암표가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일부 젊은 층은 구매한 티켓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은 재테크의 일환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7-8월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대규모 콘서트와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당장 15일에는 여수시 오립동 진남체육관에서 '사이 흠뻑쇼 SUMMER SWAG 2023'가 열리고 같은 날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에서는 '2023 포레스텔라 전국투어 콘서트'가 펼쳐진다.

오는 29일에는 '10CM summer concert with CGV VOL.2'가 CGV 광주 금남로점에서 열리고, 다음달 12일에는 광주여대에서 '팬텀싱어4' 콘서

트와 조선타 대운동장에서는 '광주 포세이돈 워터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티켓배이, 번개장터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예매에 성공한 이들이 티켓 원가에 웃돈을 붙여 비싸게 판매하는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15만4000원이 정가인 '사이 흠뻑쇼' 티켓은 35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팬텀싱어4' 콘서트 티켓의 경우 원가는 15만4000원인데 비해 최대 20만3000원까지 판매 중이다. 포레스텔라 콘서트는 12만1000원 짜리 티켓이 18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판매글에는 '어렵게 잡은 좌석이라서', '좋은 좌석이라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예매하지 못한 이들은 '올머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다.

'암표'란 공연이나 운동경기 등 좌석을 정상가에 구매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암표 거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홍행장, 경기장, 역, 나무터, 정



판매 사이 여수 흠뻑쇼 60번대 극초반 350,000원

[상화] 영화연극공연 2023.07.12. 10:04 조회 31
지난 12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사이 여수 흠뻑쇼 티켓. <온라인 캡처>

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

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판매자가 매크로 프로그램(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 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로 봐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매크로로 대량 구매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암표 거래는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젊은 층에서는 이를 이용한 재테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암표 거래를 통한 추가 수익의 수혜자는 아티스트나 콘텐츠 제작자가 아닌 판매자 개인이라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암표 거래만 단속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법률 자체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전자거래를 통한 암표거래도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공항 인터넷 장애 국내선 여객기 운항 2시간동안 차질 빚어

광주공항에서 인터넷 통신장애가 발생해 2시간여 동안 국내선 여객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13일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공항 내 한 항공사 발권 창구에서 인터넷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후 3시 45분, 오후 4시 40분 출발 예정이었던 제주행 항공기 2편의 발권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창구가 혼잡해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

또 비행기 이륙 시간이 40분-1시간 가량 지연되는 등 탑승객 총 279명이 불편을 겪었다. 항공사 측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 2시간만인 오후 4시 30분께 인터넷망을 정상화했다.

광주공항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이 아니라 항공사에서 이용하는 인터넷망에 문제가 생겨 항공사 발권 작업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긴급 조치를 통해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 의료대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 불편

전원 조치·사전 통보로 혼잡 줄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인 13일 광주·전남지역 병원에서는 큰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이 전국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접수와 수납을 위해 방문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평소 수준으로 우려했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업 영향이 적은 외래 진료와 달리 입원병동 측

은 공백을 우려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전원 조치' 등이 이뤄졌다.

파업 참여 인원이 많은 조선타병원엔 파업 여파로 환자 25명 가량이 전원 조치됐다. 간호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증상이 호전된 환자 위주로 협력 병원 혹은 타 병원으로 이동시켰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길어진 대기 시간으로 타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병원 측은 외래 진료의 경우 예약 환자로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광주·전남 보건의료 노조원 1500여명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에서 열린 상경 집회에 참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몰된 도로...차량 통행 제한

광주시 동구의 조선대학교 사범대와 자산동을 잇는 도로가 13일 폭우 여파로 함몰되면서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출마당시 무소속이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

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시장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장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하는 특정후보는 누구인지, 정당과 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목포시장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생후 이틀 아들 생매장 친모 구속 "잘못했습니다"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범행 6년만에 구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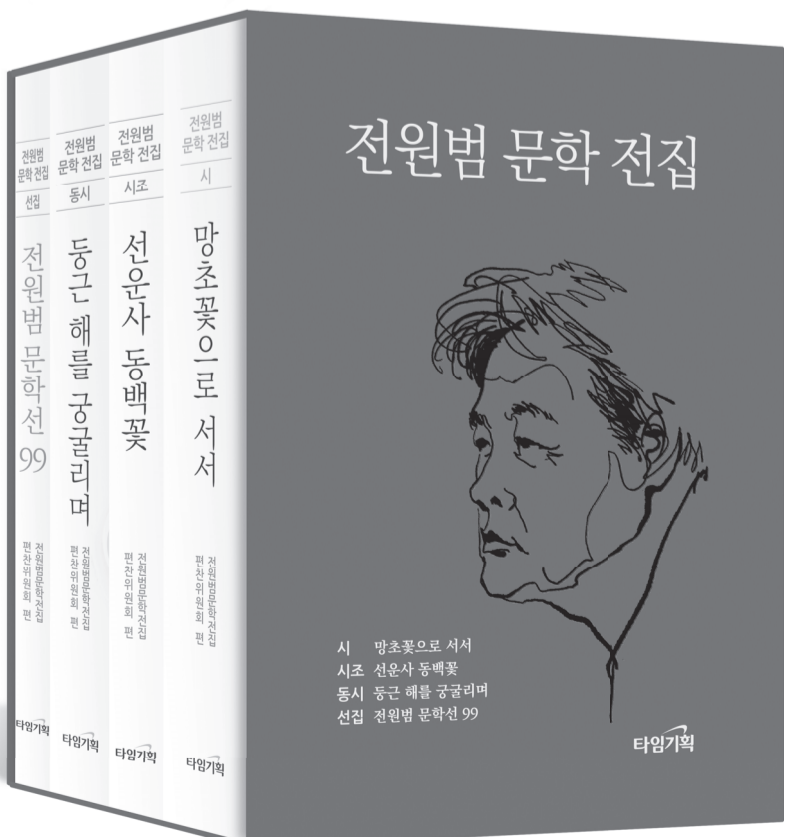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미혼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산체로 매장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A씨는 '왜 살해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 했습니다'라고 대답

했다. 일명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 나선 전국 지자체의 조사로 인해 검거된 A씨는 수사 초기 '아이가 숨지자 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산체로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지 일대에서 사흘째 사체 발굴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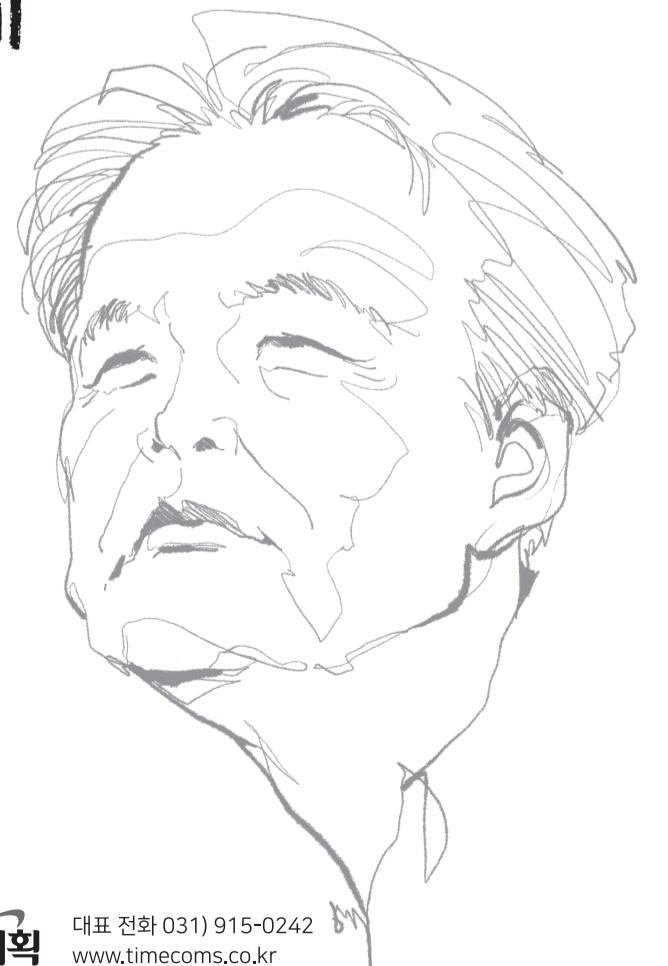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선집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